

2021 N개의서울

강북클러스터 <퍼실리테이터> 선정 심의총평

□ 심의위원회 구성

연번	이름	소속
1	김진환	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
2	박미숙	공공미술작가 · 강북미술협회 사무국장
3	심한기	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센터장
4	윤금노	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팀 팀장
5	최소진	극단 진동 대표

□ 심의총평 [심의위원 순위 무작위]

- 지역에 대한 이해도, 활동의지, 지역주민과의 소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였으나, 행정과 현장 사이에서, 매개나 구심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선정자는 찾기 어려웠음.
- N개의 서울 강북구 사업이 5년 차를 맞아 이번 년도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쉬움이 큰 상황임. 전체적으로 자신의 작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, 지역과 소통하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음.
- 기획력, 추진력 등의 경험과 능력보다는 본 사업에 대한 통찰적 이해, 강북 지역과 상황에 대한 해석력 그리고 재단과 현장과의 소통능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, 이에 맞는 선정자가 없기에 적격자 없음으로 의견을 모음.
- 향후 사업진행시 프로젝트별로 운영가능한 단기인력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제안함